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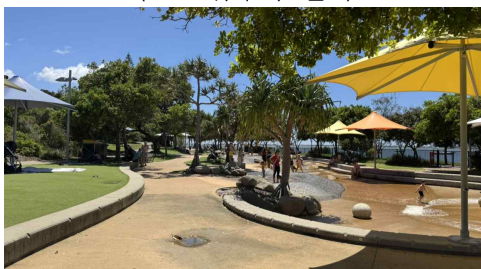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해양연구본부	성명	이슬기	직급	부연구위원
	소속	해양연구본부	성명	김예림	직급	전문연구원
	소속		성명		직급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관련사업 (예산항목)	「해양레저관광 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 사업」(수탁) (사업기간 : 2025.05.29. ~ 2026.05.28.)					
출장기간	2026.3.7.(토) ~ 2026.3.13.(금) (5박 7일)			출장지	호주 (골드코스트, 시드니)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03.07.(토) ~ 03.08.(일)	부산 → 인천 인천 → 시드니		기차/항공 이동	KTX 대한항공(KE 401) ((토)18:55 - (일)06:55)	
		시드니 → 골드코스트		항공 이동	버진 오스트레일리아(VA 515) ((일)10:20 - 10:40, 시차 1시간 반영)	
	03.09.(월)	오전 : 브로드워터 파크랜드, 마리나 미라지 현장 답사 (페리)		현지답사 및 관계자 인터뷰	페리, 대중교통	
		오후 : 골드코스트 수로청 인터뷰		현지답사 및 관계자 인터뷰	대중교통	
	03.10.(화)	오전 : 더 스피트, 더그 제닝스 파크, 골드코스트 피셔맨스 CO-OP, 메킨토시 아일랜드 현지조사		현지답사 및 관계자 인터뷰	대중교통	
		오후 : 골드코스트 투자유치청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03.11.(수)	오전 : 쿠메라 해양산업단지, 서퍼스 파라다이스, 브로드비치		현지답사 및 관계자 인터뷰	대중교통	
		오후 : 그리피스 관광 연구소 (GIFT)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03.12.(목)	골드코스트 → 시드니		이동	버진 오스트레일리아(VA 512) (09:20-11:50)	
		오후 : 시드니 국립해양박물관, 클락키, 달링하버, 바랑가루		현지답사 및 관계자 인터뷰	페리, 대중교통	
	03.13.(금)	시드니 → 인천 인천 → 부산			대한항공(KE 402) (09:10-17:50)	

출장성과	○ 출장목적 달성 정도 - 과제와 관련하여 호주 골드코스트 수로관리청(GCWA), 투자유치청(Invest Gold Coast), 그리피스 관광연구소(GIFT)를 방문하여 현지 전문가 면담을 수행함. - 골드코스트 주요 거점 현장답사를 통해 해양관광 거점 운영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국내 거점 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투자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실증 자료를 확보함. ○ 주요성과 - 전담 법정 기관(GCWA) 중심의 통합 수로 관리 거버넌스와 이용료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재정 구조의 메커니즘을 파악함. -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리스크 완화(De-risking) 제도 및 빅데이터·시민 과학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니치 마켓 육성 전략의 시사점을 도출함.
향후계획	○ 출장 성과 공유 계획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TDI 및 원내 연구진을 대상으로 호주 해양관광 거점 조성 및 투자 유치 우수사례 등 주요 출장 성과를 공유. ○ 정책화 등 활용 계획 - 본 과제의 정책 제언 및 로드맵 수립에 호주 사례를 벤치마킹 근거로 활용하고, 향후 관련 법정 계획 및 거점 조성 정책 추진 시 기초 자료로 반영.
참고 등 특이사항 (건의사항)	

* 주요업무 수행 결과 별지 작성 후 첨부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업무①	3.9.(월) 오전 강-바다 연계 해양레저 현장 답사
수행계획	☐ 브로드워터 파크랜드, 마리나 미라지 답사 - 목적: 민간 주도 복합 상업 시설 답사 및 고부가가치 해양관광 모델 분석 - 세부 내용 · 요트 계류시설(Marina)과 하이엔드 쇼핑, 다이닝이 결합된 호주 퀸즐랜드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해양복합문화 공간. 단순한 정박지를 넘어 해양 레저를 라이프스타일로 확장한 성공 사례 · 마리나 시설이 단순한 배 보관소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관광의 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민간의 공간 기획력을 벤치마킹하고 고부가가치 해양관광 모델 개발을 위한 시사점 분석
수행결과	☐ [브로드워터 파크랜드] 현황 - 사우스포트에 위치한 대규모 수변 공원으로 공원, 야외 공연장, 수영장, 어린이 물놀이장(Rockpools), 보트 선착장, 잔디 광장을 갖춘 다기능 복합 문화 공간 - 락풀이라는 인공 습지형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무료로 운영하며, 해수 순환 시스템을 활용해 운영 비용을 줄이고 생태적인 교육 효과를 제공함 ☐ [HOPO Ferry] 현황 - 골드코스트의 수로(내해)를 연결하는 Hop-on Hop-off 방식의 페리 서비스 - 민간 사업자가 공공에서 조성한 선착장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요트가 없는 관광객이나 주민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골드코스트의 운하와 수변 경관을 즐기며 주요 지점을 연결하여 접근성을 높인 서비스 ☐ [마리나 미라지] 현황 - 쇼핑몰과 고급 요트 문화, 상업 시설이 결합된 워터프론트 복합 단지 - 인근의 6성급 호텔과 고급 요트 정박지, 쇼핑몰이 연결되어 있으며, 수로라는 공간을 상업 시설의 테라스와 연결하여 전망 자체를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드는 설계를 통해 구매력이 높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 - 마리나 미라지 주요 쇼핑몰과 레스토랑은 현재 공사 중으로 이용 불가 <브로드워터 파크랜드>  <HOPO Ferry 루트>  <마리나 미라지>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본 과제에서의 활용 방안 ○ 도심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관광형 해상 모빌리티를 구축, 주요 관광지 및 상업지를 잇는 페리 노선을 구축하여 이동 수단 자체가 하나의 관광 콘텐츠가 되는 경험 설계 ○ 바다와 요트 조망 자체를 수익으로 전환하는 뷰 프리미엄 전략을 펼치기 위하여 마리나와 상권을 결합한 시설 조성
업무②	3.9.(월) 오후 골드코스트 수로청 관계자 인터뷰
수행계획	□ 골드코스트 수로청(Gold Coast Waterway Authority) 인터뷰 및 현지조사 - 인터뷰 질문 · 비전 및 협력 체계: '연안 라이프스타일 전략 2050' 수립 과정에서의 GCWA 핵심 역할 및 유관 기관 간의 통합 거버넌스 운영 체계 파악 · 정책 및 마스터플랜: '더 스픛(The Spit)' 마스터플랜의 성공 요인 분석 및 한국형 해양 레저관광 종합계획의 실효성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도출 · 수로 및 콘텐츠 활성화: 강과 바다를 잇는 통합 수로 전략의 성공 요인 및 이동 수단을 포함한 수로 자원의 관광 콘텐츠화 전략 분석 · 특화 수요 및 인프라 관리: 니치 마켓 수요 대응을 위한 용도지역(Zoning) 조정 및 인프라 운영의 유연성 확보 방안 · 갈등 조정 및 주민 참여: 환경 보존과 레저 이용 간의 가치 갈등 조정 기제 및 마스터플랜 이행 과정에서의 지역 주민 참여(Co-creation) 제도화 사례 파악
수행결과	- 일시/장소 : 2026.3.9.(월) 13:00-14:30 / 골드코스트 수로청 회의실 - 참석자 : 골드코스트 수로청: Chris Derksema (CEO), Shannon Hunt (Manager, Strategy & Engagement)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슬기 부연구위원, 김예림 전문연구원 - TDI: 김유경 선임연구원 [주요 의견 요약] □ 골드코스트 수로 관리의 정책 기반과 운영 체계 - 2012년 설립된 골드코스트 수로관리청(GCWA)은 전담 법령(GCWA Act)을 바탕으로 수로의 접근성, 안전성 및 지속 가능성을 통합 관리하는 법정 기관임. - 10개년 법정 계획인 '수로 관리 전략(Waterway Management Strategy)'과 실행 계획인 '수로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인프라 유지관리 및 준설 사업을 추진함. □ 수로 가치 제고를 위한 마스터플랜 및 미래 방향 - '더 스픛(The Spit)' 마스터플랜 등 장기 비전을 통해 개발과 환경 보존의 균형을 도모하며, 세계 최초의 샌드 바이패스 시스템(Sand Bypass System) 등 혁신적 기술을 운영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수로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기후변화 및 이용객 증가에 대응하는 회복력 있는 수로 생태계 구축이 핵심 과제임. [세부 내용] □ GCWA 설립 배경 및 법적 지위 - 2012년 '골드코스트 수로관리청법(GCWA Act 2012)'에 의거하여 퀸즐랜드 주정부 산하 법정 기관으로 설립됨. - 골드코스트 수로의 관리 권한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발생하던 비효율을 해소하고, 수로 관리에 특화된 전담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함임.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주요 업무: 수로 유지관리 및 인프라 구축

- 약 260km에 달하는 수로와 약 150km의 가항 채널을 관리하며, 보트 정박 시설, 공공 램프, 부잔교 등 필수 인프라의 설계 및 유지보수를 담당함.
- 수로 내 항행 안전을 위한 부표(Buoys) 및 표지판 설치, 속도 제한 규정 관리 등 수로 이용 규칙을 수립하고 집행함.

□ 샌드 바이패스 시스템(Sand Bypass System) 운영

- 골드코스트 세이웨이(Seaway)의 항행 채널이 모래 퇴적으로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86년부터 가동된 세계 최초의 영구적 모래 이송 시스템임.
- 매년 약 50만 입방미터 이상의 모래를 남쪽(The Spit)에서 북쪽(South Stradbroke Island)으로 이동시켜 자연적인 연안 묘사 흐름을 유지하고 항로의 수심을 확보함.

□ 준설(Dredging) 및 항행 안전 확보

- 매년 약 4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로 전역의 주요 항로에 대한 정기적인 준설 사업을 시행함.
- 준설을 통해 확보된 모래는 해변 복원(Beach Nourishment)에 재활용하여 해안 침식 대응 및 관광 가치 제고에 기여함.

□ 더 스픛(The Spit) 마스터플랜 수립 및 이행

- 골드코스트의 상징적인 지역인 '더 스픛'의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커뮤니티 주도의 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함.
- 30년 이상의 실행 기간을 두고 공원 조성, 슈퍼요트 정박지 확충, 상업 시설 개발과 자연 보존 구역의 조화를 꾀하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

□ 거버넌스 및 재정 구조

- 퀸즐랜드 주정부(교통부)로부터 독립적인 이사회를 운영하며, CEO 및 전문 인력들이 의사결정을 주도함.
- 예산은 주정부 교부금과 보트 등록비(Registration Fee) 수익 등으로 구성되며, 수로 이용자로부터 걷은 비용이 다시 수로 인프라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짐.

□ 이해관계자 협력 및 갈등 관리

- 수로 이용자, 지역 주민, 관광 업계, 환경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충하는 요구를 조정하기 위해 정기적인 자문위원회를 운영함.
- 특히 제트스키 이용자, 소형 보트, 대형 상업 선박 간의 수로 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역별 용도 지정 및 교육 캠페인을 병행함.

□ 디지털 기술 활용 및 모니터링

- 실시간 수심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수로 지도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항행 정보를 공유함.
- 드론 및 소나(Sonar) 기술을 활용하여 수중 지형 변화를 정밀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기반의 준설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효율성을 제고함.

□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성

- 해수면 상승 및 기상 이변에 대비하여 수로 인프라의 방재 성능을 강화하고, 생태계 복원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함.
- 수로 내 수질 환경 및 해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골드코스트 수로청 인터뷰 사진〉  〈골드코스트 수로청 인터뷰 사진〉  본 과제에서의 활용 방안 ○ 전담 법정 기관(GCWA)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 분산된 수로 관리 권한을 일원화하고, 이용료가 인프라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재정 구조를 벤치마킹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 ○ 지속 가능한 수로 관리 및 혁신 기술 도입: '샌드 바이패스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 준설을 통해 항행 안전과 해변 복원을 동시에 달성하며,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 이해관계자 협업을 통한 수로 가치 극대화: 자문위원회 운영 및 이용 규칙 수립을 통해 이용객 간 갈등을 조정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정보 공유로 이용자 편의 및 안전 확보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업무③	3.10.(화) 오전 공공 해양공간 통합관리 사례 현장 답사 및 행사 참관
수행계획	□ (오후) 더 스픛 (The Spit), 더그 제닝스 파크 (Doug Jennings Park), 골드코스트 피셔먼스 CO-OP, 메킨토시 아일랜드 현지조사 - 목적: '더 스픛 마스터플랜(The Spit Master Plan)' 이행 현황 및 더그 제닝스 파크를 포함한 공공 해양공간의 다기능적 통합 관리 체계를 분석 - 세부 내용 · 더 스픛 마스터플랜에 따른 공공 수변 공원 조성 현황과 메인 비치 주변 민간 개발 구역 간의 공간적 조화 및 배치 실태를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점검 · 더그 제닝스 파크를 중심으로 고밀도 관광지 내 대규모 공공 오픈스페이스의 집객 전략과 자연 경관 보전 및 해양 레크리에이션 기능의 상생 메커니즘을 분석 · 수변 공원과 연계된 해양 인프라의 다기능적 활용 사례를 실증 · 연안 방재용 인공 섬인 '웨이브 브레이크 아일랜드'를 방문하여, 안전한 요트 정박(Mooring) 환경 조성 및 스노클링·다이빙 등 고부가가치 체험형 해양관광 자원으로 전환된 경제적·공간적 성과를 실증
수행결과	□ 더 스픛(The Spit) - 메인비치에서 북쪽으로 길게 뻗은 모래 반도로 골드코스트 수로와 태평양을 가르는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하며, 2019년 수립된 The Spit Master plan의 핵심 구역 - 씨월드, 웨라톤 그랜드와 같은 고급 호텔, 마리나 미라지 쇼핑몰이 하단부에 위치하며 상단부에는 산책로, 낚시 포인트, 서핑 비치 등의 자연, 공공적인 성격을 띤 공간으로 구성 - 일부 유희부지는 125년 장기 임대 방식으로 민간 개발업자에게 매각/개발 제안 진행 중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더그 제닝스 파크

- 골드코스트 수로와 태평양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 보트들이 드나들며 동쪽으로는 외해에서 들어오는 파도를 즐길 수 있는 서핑비치가 있음
- 세계 최초의 모래 우회 시스템 인프라(Sand Bypass System)이 위치
- 오프리쉬 산책 구역이 있어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부지가 넓어 음악 페스티벌, 대형 지역 행사 등을 개최하는 다목적 공공 공간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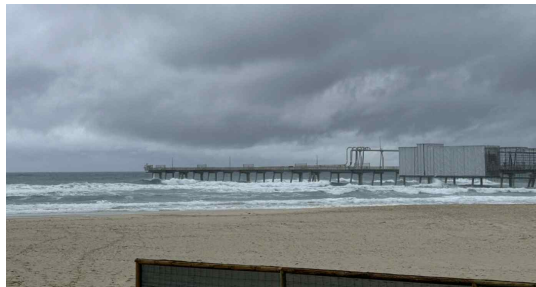
□ 골드코스트 피셔맨스 Co-op

- 지역 어부들이 직접 새벽에 잡은 해산물을 자신들의 배 위에서 직접 판매하는 협동조합
-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어부들이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가장 신선한 해산물을 구매할 수 있음

□ 매킨토시 아일랜드(Macintosh Island): 민간 주도의 준설 및 매립을 통해 저부가가치 늪지를 고부가가치 주거-공원 복합 지구로 바꾼 골드코스트의 대표적 인공섬 사례

- 서퍼스 파라다이스와 메인 비치 사이에 위치한 핵심 인공섬으로, 과거 저지대 늪지를 준설하여 대규모 주거단지와 공공 오픈스페이스를 결합한 골드코스트형 '커널 에스테이트(Canal Estate, 운하형 주거단지)'의 상징적 모델
- 섬 조성 단계부터 민간 개발자가 주도적으로 수로 준설(Dredging) 및 부지 매립을 수행하여, 홍수 취약지를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수변 부지로 전환하는 등 민간 자본 중심의 토지 가치 극대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현
- 섬 내부의 대규모 수변 공원(Macintosh Island Park) 내 '레스 로저스 기념 산책로(Les Rogers Memorial Sanctuary)' 등을 통해 조류 보호구역 및 시민 휴식처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변을 따라 민간 중심의 고급 주거 시설을 배치하여 공공 인프라와 민간 수익 모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체계를 구축

〈더 스픛(The Sp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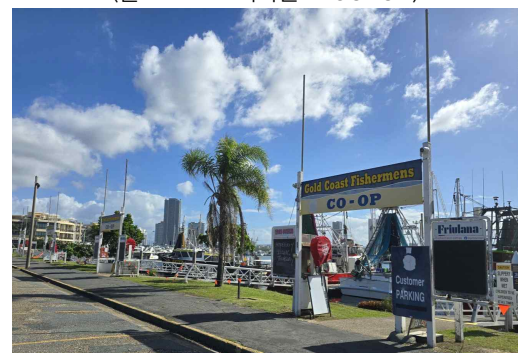
〈더그 제닝스 파크〉



〈골드코스트 피셔맨스 CO-OP〉



〈골드코스트 피셔맨스 CO-OP〉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매킨토시 아일랜드〉  〈매킨토시 아일랜드〉  본 과제에서의 활용 방안 ○ 중간 유통 없이 어민이 직접 판매권을 가짐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소득 증대 비즈니스 모델 구축, 건물을 짓는 대신 배가 정박할 수 있는 항구 시설만으로도 지역민과 관광객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명소화 ○ 대규모 유흥지에서 도심과 먼 쪽은 공공의 공간으로, 가까운 쪽은 수익형 관광 상업시설로 나누어 배치하여 지역 주민의 유입을 증대시키는 방안 벤치마킹 ○ 정부의 선 투자를 통해 기본 인프라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민간 개발자의 투자 리스크를 줄여 민간 투자 활성화
업무④	3.10.(화) 오후 골드코스트 투자유치청(Invest Gold Coast) 인터뷰 □ 골드코스트 투자유치청(Invest Gold Coast) 인터뷰 및 현지조사 - 참석자 : Andrew Hutchinson(Senior Industry Engagement Officer & Marine Industry Advisor) and Mr. Shane Dredge (Tourism Officer), KMI 이슬기 부연구위원(인터뷰), 김예림 전문연구원(인터뷰 및 정리), TDI 김유경 연구원 등 5명 - 인터뷰 질문 · 민간 주도형 클러스터 활성화 메커니즘: GCCM(Gold Coast City Marina) 등 민간 주도의 마리나 클러스터가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과 시 정부가 민간의 자율적인 투자 및 운영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한 제도적 유인책(Incentives) 및 규제 완화 사례 · 목적지 관리 계획(DMP)의 전략적 실행: 골드코스트의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DMP 수립 시 해양 산업(Marine Industry)이 차지하는 비중과, 단순한 관광 마케팅을 넘어 지역 내 고부가가치 해양 레저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지게 하는 구체적인 연계 전략 · 산업 성과 측정 및 환류 체계: 민간 주도 클러스터 성장이 지역 경제(고용 창출, 연관 산업 파급효과 등)에 미친 실질적 기여도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KPI)와, DMP 성과 분석 결과가 차기 '차세대 연안 라이프스타일 전략 2050'에 반영되는 프로세스 · 통합 거버넌스 및 정책 일관성: 민간 클러스터의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공간적 갈등을 골드코스트 시의회(City Council) 및 수로청(GCWA)이 어떻게 조정하며, 산업(Andrew)과 관광(Shane) 정책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통합 관리 메커니즘
수행결과	- 일시/장소 : 2026.3.10..(화) 13:00-14:30 / 골드코스트 투자유치청 회의실 - 참석자 : 골드코스트 투자유치청: Andrew Hutchinson(Senior Industry Engagement Officer & Marine Industry Advisor), Shane Dredge (Tourism Officer), David (Intern, Execution Team)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슬기 부연구위원, 김예림 전문연구원 TDI: 김유경 선임연구원 [주요 의견 요약]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골드코스트 투자 유치 및 관리 체계
 - Invest Gold Coast(IGC)는 약 1년 전 골드코스트 시의회(City Council) 내 부서에서 독립된 별도 법인(Proprietary Limited Entity)으로 설립됨.
 - 급성장하는 지역 경제를 가속화하기 위해 투자 유치(Invest Gold Coast), 마케팅 및 이벤트(Experience Gold Coast), 도시 브랜딩(Brand Gold Coast)의 3개 전문 법인 체계로 재편하여 운영 중임.
- 투자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 및 마스터플랜
 - 2032년 브리즈번 올림픽을 겨냥한 '목적지 관리 계획(Destination Management Plan 2032)'을 수립하여 해양관광, 자연·웰니스, 럭셔리관광 등 주요 성장 섹터를 집중 육성.
 - '더 스픛(The Spit)' 마스터플랜(2019)을 통해 주민, 환경, 상업 구역의 조화를 꾀하며, 정부 소유 부지의 장기 임대(50~100년) 방식을 통해 민간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함.

[세부 내용]

- IGC 설립 배경 및 법적 지위
 - 골드코스트는 호주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지역 중 하나로, 시정부 차원에서 활동을 극대화(Supercharge)하기 위해 전문 투자 기관을 설립함.
 - 시의회가 소유한 사법인 형태로서, 정부의 공공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주요 프로젝트 및 투자 유치를 주도함.
- 주요 업무: 투자 유치 및 인센티브 제공
 - 재정적 인센티브: 퀸즐랜드 주정부와 협력하여 신규 고용 인원 및 직급에 따른 급여세(Salary Tax)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이는 실제 현금을 주는 대신 운영 비용을 절감해 주는 효과를 가짐.
 - 비재정적 지원: 최적의 부지 선정 지원, 토지 소유주 및 부동산 중개인 연결, 현지 파트너십 구축 등 '로컬 지식'을 활용한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함.
 - 섹터별 타겟팅: 해양 제조 및 관광, 영화, 보건, 교육 등 6대 핵심 산업을 선정하여 전담 프로그램을 운영함.
- 인허가 간소화 및 사전 협의 체계 (Pre-lodgment Meeting)
 - 정식 서류 제출 전 투자자와 시의회 계획 부서(Planning Department) 간의 '사전 제출 회의(Pre-lodgment Meeting)'를 통해 계획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조정함.
 - 이러한 투명한 소통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 소모를 방지하며, 전체 인허가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음.
- 리스크 완화(De-risking) 및 사후 관리
 - IGC는 환경 영향 평가, 원주민 그룹(Indigenous Groups) 협의 등 초기 단계의 불확실한 요소들을 사전에 관리(De-risking)하여 해외 투자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함.
 - 투자 규모(예: 2,000만 달러 이상 등)와 고용 창출 및 커뮤니티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며, 선정 후에도 단계별(Phase-by-phase)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함.
- 이해관계자 협력 및 주민 소통
 - 온라인 플랫폼 '*Have Your Say*'를 운영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및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함. (*서퍼스 파라다이스 현지답사에서 확인함*)
 - 투자자와 지역 사회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정기적인 자문과 설문 조사를 병행하여 프로젝트의 공공성을 확보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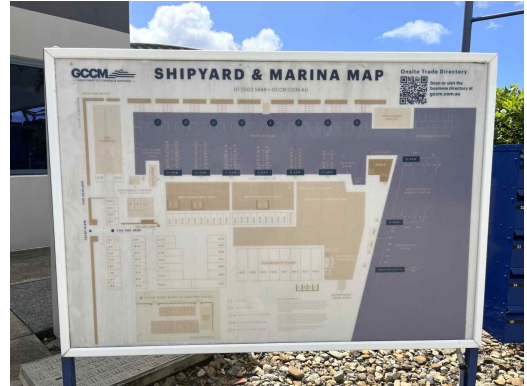
	〈골드코스트 투자유치청 인터뷰 사진〉  〈골드코스트 투자유치청 인터뷰 사진〉  본 과제에서의 활용 방안 ○ 전문 투자 유치 기관의 거버넌스 벤치마킹: 시정부에서 독립된 전문 법인 체계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 수익이 다시 인프라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 검토 ○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리스크 관리 기제 도입: 환경 평가 및 주민 협의 등 초기 리스크를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는 'De-risking' 모델을 한국 해양관광 단지 개발에 적용 ○ 인허가 프로세스 효율화: '사전 협의(Pre-lodgment)' 제도를 통해 행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간사업자의 시간 비용을 절감하는 행정 지원 체계 구축 제언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업무⑤	3.11.(수) 오전 도심형 해양관광 대표지역 현지답사 및 관계자 인터뷰
수행계획	□ 쿠메라 해양산업단지, 서퍼스 파라다이스, 브로드비치 답사 - 목적: 도심형 해변의 공간 구조 및 해양레저관리 가이드라인 조사 - 세부 내용 · 단순 레저를 넘어 해양 자원을 '문화 유산'으로 지정·관리하는 WSR(World Surfing Reserve) 제도의 효과 조사 · 해변 산책로, 조명, 벤치 등 공공 디자인 요소와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무장애(Barrier-Free) 접근 시설 운영 현황 조사 · 비수기 및 야간 시간대 활용을 위한 해변 야시장(Beachfront Markets), 페스티벌 등 해양 문화 콘텐츠 운영 실태 조사
수행결과	□ 골드코스트 쿠메라(Coomera) 해양산업 클러스터 및 GCCM - 골드코스트 시티 마리나(Gold Coast City Marina: GCCM)는 골드코스트 해양스포츠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기지로, 2000년 운영 개시 이후 꾸준한 확장을 통해 호주를 넘어 남반구 최대의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함 - 쿠메라(Coomera) 지역에 위치한 이 단지는 단순한 계류 시설을 넘어, 보트의 설계·제조·수리·유지관리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워킹 마리나(Working Marina)'의 세계적 모델로 평가받음 - 원스톱 서비스 체계: 160척 이상의 계류 시설과 함께 90개 이상의 전문 업체가 상주하며, 선체 관리, 엔진 수리, 전자장비 점검 등 보트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 -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Riviera, Maritimo 등 호주 대표 보트 제조사와 인접하여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숙련된 전문 인력 양성 및 고용 창출의 허브 역할을 수행함. - 슈퍼요트 특화 인프라: 최근 50미터 이상의 슈퍼요트 및 메가요트를 수용할 수 있는 리프트 장비와 전용 유지보수 시설을 확충하여, 고부가가치 해양산업 시장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쿠메라 산업단지 전경〉



〈쿠메라 입주업체 현황〉



〈GCCM〉



〈쿠메라 산업단지 내 마리나〉



현장방문 결과 시사점

- 산업 생태계의 완결성 확인: 제조부터 폐기/수리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이 쿠메라 지역 내에 완전히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
- 고부가가치 전환: 슈퍼요트 수리 및 리피트(Refit) 시장 선점을 위한 공격적인 설비 투자가 인상적임

본 과제에서의 활용 방안

- 한국형 마리나 모델 수립 시, 단순 계류 중심이 아닌 제조·수리 산업이 결합된 '워킹 마리나' 도입 전략의 근거로 활용
- 국내 연안 거점별로 슈퍼요트(동해/남해), 중소형 레저선박(서해) 등 특화된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방안에 벤치마킹
- 민간 주도의 마리나 개발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및 정부의 간접 지원 체계 모델 제안

□ 서퍼스 파라다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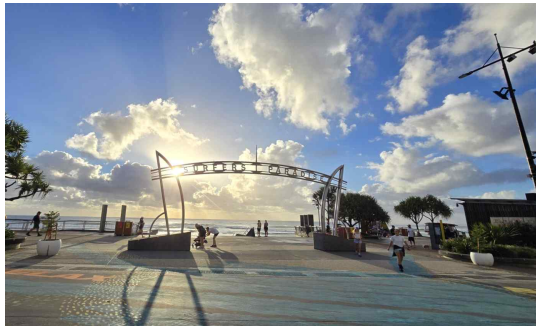
- 골드코스트의 대표적인 관광 중심지이자 상업 지구로 리조트, 호텔, 쇼핑몰,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집적된 복합 관광 거점
- 해변과 직접 연결된 입지를 활용하여 서핑, 해수욕 등 해양 레저산업을 중심으로 숙박, 쇼핑, 외식 산업이 결합되어 있음
- 해변 산책로를 따라 공공 예술작품, 야외 운동시설, 바비큐 시설 등이 배치되어 공공 공간과 상업 공간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야간에는 야시장이 개최되어 해양레저 활동을 할 수 없는 시간대에도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음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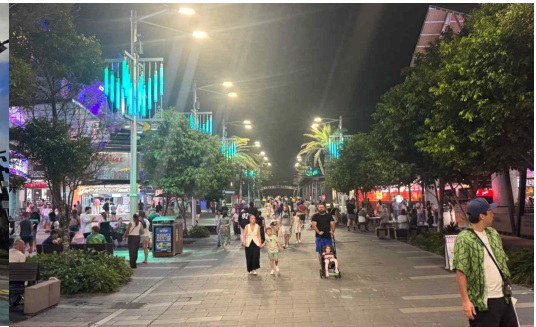
□ 브로드 비치

- 서퍼스 파라다이스 남쪽에 위치한 고급 상업 및 엔터테인먼트 지구
- 고급 호텔, 카지노 리조트, 컨벤션 센터 및 쇼핑몰이 직접되어 있어 MICE 산업 거점으로 기능하는 프리미엄 지향적인 상업 지구
- 골드코스트 최대 규모의 쇼핑몰이 위치하여 쇼핑 관광 산업을 견인하며, 중소형 상업 시설과 식음료 매장 등이 입점하여 주민과 관광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복합 상업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음
- 서퍼스 파라다이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한 분위기로 장기 체류 관광객 및 비즈니스 여행객이 주요 타겟이며, 해변 접근성과 도심 상업 시설의 균형을 이루어 주거와 관광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 평가됨

〈서퍼스 파라다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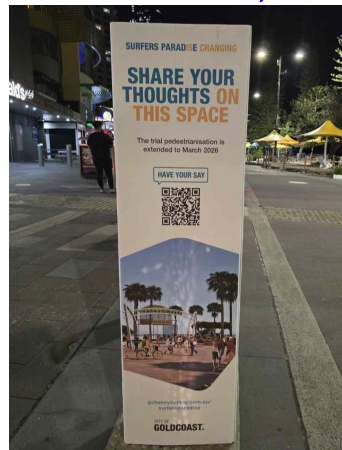
〈서퍼스 파라다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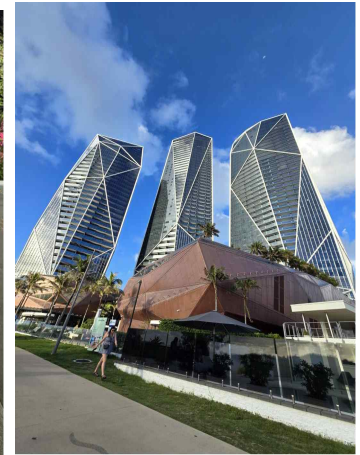
〈서퍼스 파라다이스
해양레저 이벤트 홍보〉



〈서퍼스 파라다이스
이해관계자 공개 의견 청취 사례
: *Have Your S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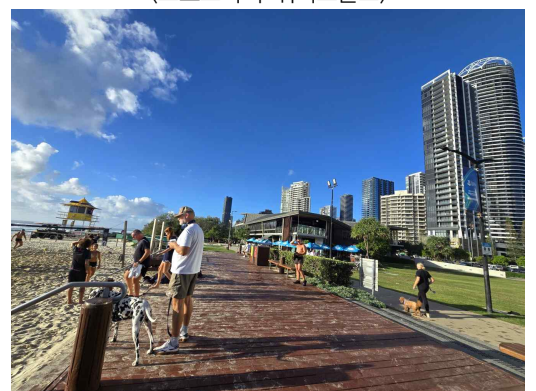
〈골드코스트 비치
민간투자 사례〉



〈브로드비치〉



〈브로드비치 워터프론트〉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본 과제에서의 활용 방안 ○ 바비큐 시설, 예술작품 설치, 산책로 조성 등 해변 공공시설의 고도화를 통한 연안 관광 콘텐츠 확충, 체류시간 증대를 도모 ○ MICE 및 비즈니스, 서핑, 요트와 같이 지역별로 특화 해양레저 브랜딩을 통해 명확히 타겟팅하는 방식으로 벤치마킹
업무⑥	3.11.(수) 오후 그리피스 관광연구소(Griffith Institute for Tourism) 인터뷰
	□ 그리피스 관광연구소(Griffith Institute for Tourism) 인터뷰 및 현지조사 - 참석자 : Associate Prof. Anna Kralj, KMI 이슬기 부연구위원(인터뷰), 김예림 전문연구원(인터뷰 및 정리), TDI 김유경 연구원 등 5명 - 인터뷰 질문 · 연구소 현황 파악: 지속 가능 관광 분야 연구 인력 구성과 최근 수행 중인 주요 해양관광 프로젝트 추진 현황 · 연구 모델 및 수준: 태평양 제도 등을 대상으로 개발한 '전환적 관광 모델'의 이론적 배경과 실제 여행지에 미친 영향 분석 · 조사 및 데이터 활용: 지역 관광 조사 데이터가 골드코스트 시의 '연안 라이프스타일 전략 2050' 등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 · 미래 관광 전략: 기후 변화 대응 및 해변 복원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해양 관광 트렌드와 학술적 대응 방안 · 협업 및 정책 제언: 산·학·관 협력을 통한 해양관광 정책 추진 노하우 및 한국의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한 제언
수행결과	- 일시/장소 : 2026.3.11..(수) 13:00-14:30 / 그리피스 대학교, 그리피스 관광연구소 회의실 - 참석자 : 그리피스 관광연구소: Associate Prof. Anna Kralj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슬기 부연구위원, 김예림 전문연구원 TDI: 김유경 선임연구원 [주요 의견 요약] □ 학술 연구와 정부 정책의 연계 및 파트너십 - 그리피스 관광연구소(GIFT)는 지난 11년(이전 센터 포함 시 20년 이상) 동안 시의회, 주 정부, 연방정부 및 산업계(호텔 등)와 긴밀한 신뢰 관계를 구축해 옴. - 정부나 관광청(Gold Coast Tourism)이 특정 현안에 대한 답이 필요할 때 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하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목적지 관광 관리 계획(Destination Management Plan)' 등 실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됨. □ 데이터 기반의 관광 분석 및 전략 수립 - 설문조사 위주의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신용카드 소비 데이터, 이동통신 위치 정보, 네비게이션 데이터 등 '행동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관광객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파악함. - 소셜 미디어 리뷰(약 100만 건 이상)를 스크래핑하고 머신러닝/AI를 활용한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을 통해 연령대별(50대 이상 vs 20-30대)로 차별화된 관광 경험을 설계함. □ 해양관광의 지속 가능성과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 -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자원을 지속 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해 경제적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이익을 창출하는 '블루 이코노미' 개념을 정책의 핵심 가치로 제안함.

- 대중 관광(Mass Tourism)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관광객의 머릿수(Volume)보다는 1인당 소비 지출(Yield)이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High-end Niche Market)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세부 내용]

□ 관광 유형의 세분화 및 정의

- 수중 관광(Aquatic Tourism): 스쿠버 다이빙 등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 해양 관광(Marine Tourism): 해상 활동과 육상 활동을 결합한 형태.
- 육상 관광(Terrestrial Tourism): 해안가 인근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 성공적인 해양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해서는 수중 활동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육상 콘텐츠(Land-based complementary activities) 개발이 필수적임.

□ 체류 시간 증대를 위한 전략 (The Spit 마스터플랜 사례)

- 골드코스트의 '더 스피트'는 슈퍼요트 터미널, 고급 호텔, 상업 시설 등 고부가 시설과 일반 시민을 위한 바비큐장, 산책로, 화장실 등 공공 편의시설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됨.
-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즐길 수 있는 시간대별 콘텐츠를 배치하고, 2~3일 이상 지속되는 이벤트(샌드 스킨어 대회, 재즈 페스티벌 등)를 개최함.

□ 시스템 사고(Systems Thinking)를 통한 정책 분석

- 관광 수요, 마케팅, 환경 영향(쓰레기 등)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피드백 루프(Loop)'를 통해 분석함.
-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실패하는 해결책(Fixes that fail)' 패턴을 경계하며 다각적인 변수를 고려한 정책 수립을 강조함.

□ 고수익 저용량(High-yield, Low-volume) 관광 모델의 구체화 및 기술 도입

- 대중 관광(Mass Tourism)의 대안으로 관광객 수의 증가보다는 1인당 소비 지출(Yield)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지향함.
- 리프 슬립(Reef Sleep):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위 플랫폼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고가(High-end)의 숙박 경험 모델.
- 기술 활용: 몬 레포(Mon Repos) 거북이 센터와 같이 야간에만 발생하는 자연 현상을 디지털 기술(AI, VR/AR)로 시각화하여 낮 시간대 관광객에게도 경험을 제공하고 보존 기금을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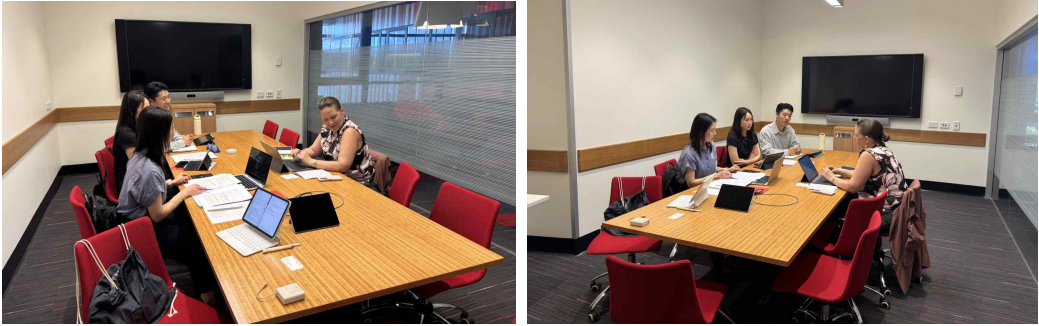
□ 참여형 연구 관광: 시민 과학(Citizen Science)의 도입

- 관광객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데이터 수집의 주체로 전환하여 관광의 가치를 높임.
- 남극 사례: 관광객이 배에서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펭귄의 개체 수를 세거나 얼음을 채집하는 등 연구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이는 관광객에게 특별한 성취감과 교육적 경험을 제공함.
-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조사(GBRMPA): 스노클링을 즐기는 관광객에게 수중 기록용 플래시 스틱 시트와 크레용을 지급하여 산호의 상태나 어종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연구진에게는 방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바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집중도 높은 경험을 선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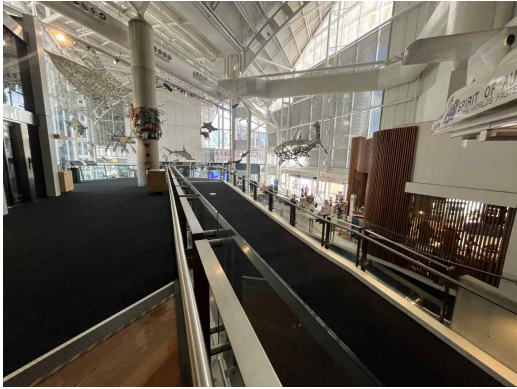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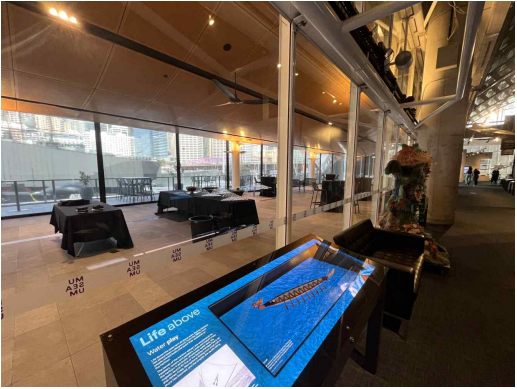
□ 니치 마켓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수단

- 호주 정부는 보조금(Grants) 지급 시 선정 기준(Selection Criteria)을 전략적으로 설계하여 니치 마켓을 유도 가능
- 예시: 지속 가능한 관광 인증을 필수 요건으로 걸거나 특정 니치 마켓을 타겟팅한 사업에만 자본을 지원함으로써, 대중관광 위주의 사업자가 자연스럽게 필터링되도록 관리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가능 □ 해양 관광 개발의 리스크 관리: '유령 리조트'의 교훈 - 1970~80년대에 유행했던 섬 리조트 개발 중 현재 방치된 '유령 건물(Ghost buildings)' 사례가 10~15개에 달함. - 이는 사이클론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사들이 재건축 비용 지불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섬 지역 개발 시 보험 및 환경적 복원력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임을 시사함. □ 현지인과 관광객의 조화로운 이용 체계 - 고가의 시설 도입과 동시에 현지 주민을 위한 가격 차별 정책(Dual Pricing)의 필요성을 강조함. - 카자흐스탄의 스키 리조트 사례처럼, 외부 관광객에게는 높은 비용을 청구하여 수익을 내고 현지 주민에게는 신분 확인을 통해 저렴한 이용권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임. 〈그리피스 관광연구소 인터뷰 사진〉 〈그리피스 관광연구소 인터뷰 사진〉  본 과제에서의 활용 방안 ○ 데이터 기반 수요 예측 모델 도입: 신용카드 및 통신 데이터 분석 기법을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해양관광 거점의 타겟 고객군을 정밀하게 설정하고 인센티브 전략에 반영. ○ 지속 가능한 고부가 관광 모델 개발: '시민 과학' 개념을 도입해 관광객이 해양 환경 보호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블루 이코노미'를 실현하는 한국적 니치(Niche) 마켓 창출. ○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운 공간 기획: '더 스피트'의 사례처럼 고급 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극대화하는 마스터플랜 수립. ○ 전략적 이벤트 및 시간대별 콘텐츠 배치: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단순 시설 구축을 넘어 야간 및 아침 시간대 특화 프로그램과 연계된 이벤트 연간 계획 수립 제언.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업무⑦	3.12.(목) 오후 시드니 국립해양박물관 현지답사
수행계획	□ 달링하버 & 시드니 국립해양박물관 현지답사 - 목적: 도시재생 측면에서의 워터프론트 복합 개발 사례 및 해양문화유산의 문화관광자원화 실태 파악 - 세부 내용 · 달링하버: 낡은 항만 시설을 상업·문화·레저가 결합된 복합 용도로 재개발한 세계적 성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공 사례의 공간 배치 및 집객 전략 분석 · 시드니 국립해양박물관: 박물관 내 전시 콘텐츠와 연계된 함선 계류 시설 활용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 파악을 통해 국내 국립해양문화시설의 해양관광 연계 방안 모색
수행결과	□ 시드니 국립해양박물관 및 달링하버 연계 지구 - 호주 국립해양박물관은 시드니 달링하버(Darling Harbour)의 서쪽 수변에 위치한 국가 대표 해양 문화 시설로, 해양 유산의 보존을 넘어 지역 경제와 관광의 핵심 앵커(Anchor) 시설 역할을 수행함 - 지역 거점 및 교통 연결성: 단순한 박물관 기능을 넘어 페리 터미널, 라이트 레일(노면전차), 보행교(Pyrmont Bridge)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역 중심 거점임. 시드니 도심과 인근 주거·상업 지구를 잇는 길목에 위치하여 높은 방문객 접근성과 유동인구를 확보함 - 외부 공간의 전략적 활용: 박물관 내부 전시에 국한되지 않고, 박물관 앞 수변 공간(Wharf)을 적극 활용함. 구축함, 잠수함, 범선 등 실제 퇴역 함선들을 계류·전시함으로써 달링하버의 해양 경관을 완성하고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극대화함 - 수익 모델의 다변화 및 활성화: 박물관의 정체성을 담은 차별화된 굿즈(Goods) 판매뿐만 아니라, 수변 조망권을 활용한 공간 대여 사업을 활발히 전개함. 기업 행사, 웨딩, 컨퍼런스 등 민간 이벤트를 적극 유치하여 박물관 운영 수익 구조를 고도화함 - 포용적 공간 설계(Barrier-free): 모든 시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시설 전반에 베리어 프리(Barrier-free) 관점을 적용함. 휠체어 접근 가능 동선, 전용 리프트,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 체계 등 유니버설 디자인을 철저히 구현하여 공공 시설로서의 완성도를 높임 〈시드니 국립해양박물관 전경〉  〈국립해양박물관 내 굿즈 샵〉  〈포용적 공간 설계〉  〈수익화를 위한 임대공간 활용〉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현장방문 결과 시사점

- 복합 문화거점으로서의 역할 확인: 박물관이 폐쇄된 전시 공간이 아닌, 도시의 교통과 보행 네트워크 속에 녹아든 열린 공간임을 확인
- 적극적인 상업화 전략: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간 대여 및 굿즈 사업을 통해 운영 예산의 자립도를 높이는 효율적인 수익 모델 관찰
- 공간 활용의 입체성: 실내-야외-수변-함선으로 이어지는 동선 구성을 통해 관람객의 체류 시간과 만족도를 높임

본 과제에서의 활용 방안

- 국내 국립해양박물관 및 유관 시설의 '지역 사회 연결성 강화' 및 '도시 재생 거점화' 전략의 논거로 활용
- 해외 선진 사례의 공간 대여 및 MD 개발 프로세스를 국내 시설의 민간 위탁 운영 및 수익 모델 다변화 방안에 벤치마킹
- '베리어 프리' 등 누구나 접근 가능한 해양 문화 환경 조성 가이드라인 수립 시, 시드니의 시설 접근성 설계 기준을 참고자료로 활용

□ 써큘러키(Circular Quay)

- 시드니의 모든 페리 노선이 집결하는 해상 교통의 허브이자 대형 크루즈 터미널이 위치한 국제적 거점
- 단순한 이동 수단인 페리를 관광 필수 코스이자 대중교통으로 활용하며, 수변을 따라 거리 공연, 카페, 레스토랑 등이 조성되어 유동인구가 많음
- 페리 선착장과 트램, 기차, 버스 등의 정류장이 집적해 있고 도심에 위치하여 환승 및 접근성이 우수함

□ 달링하버(Darling harbour)

- 과거 화물 부두였으나 현재는 수족관, 해양박물관, 쇼핑몰, 컨벤션 센터가 밀집한 관광 중심지
- 보행자 전용 교량인 피어몬트 다리를 통해 도심과 유기적으로 연결

□ 바랑가루(Barangaroo)

- 20세기 중반까지 시드니의 주요 화물 터미널이었으나 선박 대형화로 경쟁력을 상실해 공터로 방치되었으며, 이를 국제적 비즈니스 중심지로 확장하기 위해 재개발됨
- 과거 훼손된 해안선을 1836년 이전의 자연 상태로 복원한 '바랑가루 리저브(Barangaroo Reserve)'를 조성하여 단절되었던 수변 공간의 공공성과 생태적 가치를 회복
- 호주 자생 식물이 식재된 수변 공원과 국제적 기업들의 비즈니스 지구가 혼재함
- 기업의 직장인들이 수변을 따라 조성된 레스토랑 등 상업시설을 활발하게 이용하며 주중, 주말 소비층을 확보

〈달링하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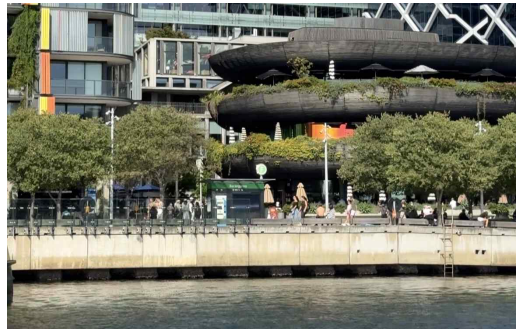


〈써큘러 키〉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바랑가루〉



〈바랑가루 페리 선착장〉



본 과제에서의 활용 방안

- 씨쿨러키, 달링하버, 바랑가루, 시드니 국립해양박물관 등 주요 거점을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페리 노선으로 통합 연결**하여 **해상 교통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이동 과정 자체를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 바다 조망권을 극대화한 공유 오피스와 고품격 다이닝 거리를 배치, 단순 관광객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여행객 유입
- 도심 중심부에서 해변까지 끊김없이 이어지는 보행자 전용 그린웨이 설계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휴식을, 관광객에게 포토존을 제공하는 수변공원 조성